

■ 24년만에 춘계리그 우승 원광대

김준환·조근중 활약 있었다

〈옛 타이거즈맨〉 〈무등기야구 출신〉

김 화려한 프로 접고 2003년 감독 맡아 후진 양성

조 청원고 시절 무등기 우승 주역... 대회 MVP에



〈김준환 감독〉 〈투수 조근중〉

돌아온 조근중은 춘계리그 최우수선수에 등극하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이름을 야구 팬들에게 알렸다.

조근중은 "무등기에서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질 것이라 생각 하지 않고 마운드를 지켜 또 다시 우승의 순간을 즐길 수 있었다"며 "그동안 타자들에게 까다로운 투수가 되기 위해 타이밍을 연구하고 준비했다. 낮게 코너워크 되는 직구도 자신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이거즈 전설의 'K트리오' 김준환 원광대 감독이 대학야구 정상에 올랐다.

김준환 감독이 이끄는 원광대가 지난 1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성균관대와 2010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 결승에서 상대 끝내기 폭투로 4-3 역전승을 거뒀다. 1986년 이후 24년 만에 되찾은 춘계리그 패권이다.

2001년 프로야구계를 떠났던 김준환 감독은 2003년부터 원광대를 맡아 아마 야구 지도자 길을 걷고 있다.

20일 성대한 환영식 속에 원광대에 복귀한 김준환 감독은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해서 어려운 승부가 펼쳐졌지만 끝

까지 경기에 집중해주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무척 기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광주에서 화려한 야구인생을 살았다고 회상하는 김준환 감독만큼 팀에 우승을 안겨준 2학년생 사이드암 투수 조근중도 광주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선수다.

조근중은 청원고 3학년이던 2008년 제 15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 광주일고와의 준결승에서 완봉승을 거두며 팀의 결승행을 견인했다. 청원고 최인수 감독은 조근중의 활약에 힘입어 부임 6개월 만에 고등학교에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고등학교에서 훌쩍 자란 대학생으로

예고했다.

최명준은 경기 후 "지난 동계훈련에서 약점이었던 지구력을 보완하게 주효했다"면서 "앞으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설움을 확실시 써서 내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청 심재용 감독은 "스피드가 뛰어난 최명준이 체력을 보강해 지구력까지 갖추게 됨에 따라 올시즌 활약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현재 광주무등경기장에서 하루 5시간씩 고강도 훈련을 실시하며 기록단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시청 최명준 '금빛 질주'

실업육상선수권 남 일반부 400m 1위

광주시청 최명준이 금빛 질주를 펼쳤다. 최명준은 20일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린 제 14회 전국실업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일반부 400m에서 1등으로 골인, 대회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경기에서 빠른 스타트로 처음부터 선두로 나선 최명준은 결승선까지 1위를 고

수하며 48초 09를 기록, 함석진(문경시청·48초64)과 최성조(경철대학·48초90)를 제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광주시청 소속 3년째인 최명준은 그간 발목 부상으로 전국대회에서 이탈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으나 지난 겨울훈련을 통해 정상기량을 회복, 올시즌 '화려한 부활'을



추신수 AL 데뷔 첫 '금주의 선수'

19타수 11안타, 3홈런 11타점 활약

불붙은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이 주일의 선수'로 뽑혔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MLB.com)는 20일(이하 한국시각) 추신수가 지난 한 주간 타율 0.579(19타수 11안타), 3홈런, 11타점, 장타율 1.211, 출루율 0.680을 기록해 2005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6년 만에 처음 이 주일의 선수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생애 두 번째 만루홈런을 포함해 5타점을 혼자 쓸어담았다. /연합뉴스

추신수는 2008년 9월 타율 0.400, 5홈런, 24타점을 올려 아메리칸리그 이 달의 선수로 선정된 적이 있지만 이 주일의 선수로 뽑힌 것은 처음이다. 추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6연전에서 23루타를 쌓아 리그 공동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결정적인 활약이 눈부셨다. 16일 텍사스와 경기에서 8회 3점 홈런을 때려 역전승을 이끌었고 이를 뒤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경기에서도 8회 결승 2루타를 쳐냈다.

19일에는 생애 두 번째 만루홈런을 포함해 5타점을 혼자 쓸어담았다. /연합뉴스

삼성화재 프로배구 3년연속 '왕중왕'

챕프전 현대에 4승 3패...가빈 MVP

끈질긴 수비와 조직력을 앞세운 삼성화재가 영원한 라이벌 현대캐피탈을 꺾고 프로배구 남자부를 3년 연속 제패했다.

삼성화재는 19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끝난 NH 농협 2009~2010 시즌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7전4선승제) 최종전에서 양팀 합쳐 최다인 50점을 폭발한 주포 가빈 슈미트(24)의 눈부신 투혼을 앞세

워 영원한 라이벌 현대캐피탈을 치열한 접전 끝에 3-2로 눌렀다.

삼성화재는 이로써 2005년 프로배구 출범 후 처음으로 7전4선승제로 치러진 챔피언결정전에서 4승3패로 현대캐피탈을 격파하고 2007~2008시즌, 2008~2009시즌에 이어 세 시즌 연속 우승을 일궜다.

가빈은 경기 후 기자단 투표에서 45표 중 44표(1표는 석진욱)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최우수선수에 선정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목포 영화중 2관왕

춘계배구대회 이어 대통령배 우승

목포 영화중 배구팀이 올 전국대회 2관왕에 오르며 최강의 전력을 과시했다.

영화중은 22일 강진여중에서 열린 제44회 대통령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여자부 3차전 광주체육중과의 경기에서 2-0(25-23, 25-17)으로 승리, 제천여중과 포항여중을 제압한데 이어 3승으로 대회 패권을 차지했다. 이로써 영화중은 지난 3월 열린 춘계대회 우승과 함께 2개 대회 연속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경기에서 영화중은 1세트 초반 4점 차로 뒤지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탄탄한 수비력을 갖추고, 상대의 서브서비스가 흔들리는 틈을 타 전세를 뒤집는데 성공했다. 2세트에서는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여유있게 승부를 결정지었다.

영화중 신단비(3년)는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으며 김소원(3년)은 세트상, 이윤지(3년)는 우수선수장학금을 각각 받았다. 영화중 전상훈 감독은 지도자로서의 주인공이 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올해도 용병 그들만의 리그

■ 프로배구 결산

지난달 GS칼텍스가 역대 최다인 14연승을 달리던 무렵 한 배구인은 이번 시즌 여자부 프로배구를 '데스티나가 오기 전과 온 이후'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퍼용병' 데스티니 후커(23·미국)가 없었을 때 GS칼텍스는 2승10패로 골짜기였다. 직전 시즌 정규리그 1위팀이 한해 용병 농사를 잘못 지어 하루 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것과 다름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데스티니가 오고나서 GS칼텍스는 14연승을 달렸고 불가능해 보였던 플레이오프까지 나갔다.

하지만 미국 대학부 높이뛰기 챔피언 출신으로 배구 코트 경험은 많지 않은



〈가빈〉 〈몬타노〉

신영철 감독도 끝까지 용병에 집착하는 마한가지였다.

다나일 밀류세프(25·불가리아)에게 퇴출을 검토한다고 흘려놓고 막판 분전을 기대했다 여의치 않자 2005~2006시즌 삼성에서 댄 경험이 있는 레안드로 다 실바(27·브라질)를 데려왔다.

현대캐피탈도 매튜 앤더슨(23·미국)을 시즌 막판 퇴출하고 헤르난데스(40·

남 가빈·피라타·레안드로 등 배구관 주도

여 GS칼텍스 데스티니 영입 14연승 질주

데스티니는 플레이오프에서 급격하게 흔들렸고 결국 포스트시즌에서 확 살아난 KT&G의 '엄마 용병' 마렐라이네 몬타노(27·콜롬비아)가 이번 시즌 최고 외국인 선수가 됐다.

몬타노는 같은 콜롬비아 대표팀 선배인 현대건설 케니(31·콜롬비아)의 벽을 넘어가면서 KT&G를 5년 만에 정상으로 끌어올렸다.

남자부에서 1라운드 전승 돌풍을 일으켰던 LIG손해보험은 카를로스 피라타(30·베네수엘라)가 발목을 빼앗으면서 삼성, 현대의 양강 구도를 무너뜨리겠다는 야심이 일순간 불거짐으로 바뀌었다.

시즌 중반 10연승을 달렸던 대한항공

쿠바)를 영입하는 강수를 뒀다. 배구는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 시작 전날까지 1회에 한해 외국인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도는 삼성화재가 철석처럼 믿은 '캐나다산 폭격기' 가빈 슈미트(24) 한 명을 당해내지 못했다.

가빈은 챔피언결정전 1차전과 7차전에서 한 경기 최다인 50점을 두 번이나 뽑아내며 삼성화재의 3연패를 이뤄냈다.

삼성화재는 안젤코 추크(크로아티아)와 가빈으로 올해까지 세 시즌을 최강자로 버틸 수 있었다. 프로 원년부터 여섯 시즌 동안 삼성화재가 우승하지 못한 2005~2006, 2006~2007시즌에는 현대캐피탈에 손 투니(미국)라는 걸출한 용병이 있었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김찬영·한태산 금

전국레슬링 97kg급·46kg급 우승

광주체고 김찬영과 한태산이 제35회 KBS배전국레슬링대회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찬영은 20일 해남우슬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자유형 97kg급 결승에서 고민수(제주남고)를 2회 플승으로 누르고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한태산은 그레코로만형 46kg급 결승에서 강호 권우준을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밖에 광주체고 송형진(F76kg)·이명진(F69kg)·박용훈(F58kg)·김술기(F50kg)·김태성(G50kg)은 각각 동메달을 차지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 첨단고 최우섭 볼링 금

광주첨단고 최우섭이 제25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볼링대회에서 우승했다.

최우섭은 20일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마스터즈 결승에서 2113점을 기록, 최경환(경기분당고·2위)·황동준(경기덕성고·3위)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김연아 천안함 위로금 쾌척

스포츠마케팅 회사 IB스포츠는 지난 16~1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KCC 스위트 페스타 온 아이스 2010'의 입장 수익금 중 5000만원을 천안함 희생 장병을 위로하는 성금으로 내놓았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지역신문협회
중앙만 바깥보는 시키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역발전은 지방신문이 선도합니다
사정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지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중앙지는 누구 편입니까?
지벌지는 우리 지역을 대변합니다
지벌지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